

기름 낀 바다에서 청정한 마음자리를 찾다

1300리 바닷가가 들쭉날쭉하게 펼쳐진 태안은 해안 풍경이 일품이다. 꽃지·어은돌·파도리·장돌·바람아래 등 해수욕장 이름도 정겹다. 눈앞에 펼쳐진 황금빛 백사장, 깃가에 맴도는 철쭉이는 파도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신선한 바다내음과 함께 가슴속 깊이 퍼지는 소나무향도 아름다운 태안이지만, 태안에 가면 태안마애삼존불을 비롯한 산사가 불자들을 반긴다.

#1. 태안에서 가볼만한 사찰

●태안마애삼존불 미소와 함께 하는 태을암=백제의 미소, 마애삼존불이 태안에도 있다. 태안을 백학산에 오르면 태안마애삼존불(국보 제307호)을 만난다. 태안 마애삼존불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미술품으로 마애불의 호시다.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보살입상을 중심으로 양옆에 자리한 얼굴에 살짝 번지는 미소 면 여래입상은 일반적으로 중앙의 여래불을 주존불로 좌우에 협시보살이 있는 것과 달리 세계에 유래 없는 하나뿐인 도상이다. 태안마애삼존불이 있는 태을암에서 만날 수 있는 석해가 한눈에 굽어보이는 전경 또한 태안의 자랑이다.

●은행나무 전설 품은 흥주사=흥주사는 고려 말엽 창건한 고찰이다. 만세루(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3호)와 삼층석탑(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8호) 등과 함께 삼목설화 담긴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산사 분위가 물씬한 서산 부석사(사진 왼쪽)와 태안마애삼존불(오른쪽 위). 수덕사 전경(오른쪽 아래).



있다. 흥주사 은행나무는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 절터를 점지해 그 자리에 깎아낸 지팡이가 자라났다는 나무다. 사슴을 꼭 닮은 900세 먹은 느티나무와 삼나무도 흥주사의 숨은 볼거리다.

●'태평 국운' 발원 담은 태국사=태국사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다. 백제 무왕 때 창건했으나 폐사 후 조선 세종 때 태안부사의 현몽으로 '기원 태평 국운(祈願 泰平 國運)'이라 쓰인 금불상을 발견해 다시 사찰을 창건했다는 창건설화가 전해진다.

●죽사 절터 지키는 몽산리석가여래좌상 태안 청계산 기슭 죽사(竹寺) 터에 위치한 석가여래좌상은 1m 정도의 높이로 통일신라시대 불상이다. 결가부좌하고 향마인 자세를 취한 불상의 광배는 보주형, 화염문, 그리고 상부의 좌우는 비천상(飛天像)이 그려졌다.

본사로 한말 경허 스님이 머물며 선종을 크게 일으킨 이래, 만공 스님이 대를 이어 많은 후학을 배출했다. 수덕사의 자랑거리인 대웅전(국보 제49호). 1308년 건축돼 700여년 수덕사를 지켜온 대웅전은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과 함께 현존 목조건축물 중 3번째로 오래된 건물이다.

3층석탑, 범종각, 청련당 등 문화재와 60여년 만에 문을 연 조인선원도 수덕사의 자랑이다. 수덕사에서 1020개 돌계단을 지나면 정혜사가 있다. 수덕사에서 열리는 여름수련회와 어린이여름학교 교도 휴가를 보람 있게 보내는 한 방법. (041) 337-6565

●의상과 선묘 실화 간직한 부석사=서산 부석사는 영주 부석사와 이름도, 창건설화도 같다. 영주 부석사에 비해 아담한 규모지만 고찰의 고즈넉함은 여느 사찰 못지않다. 도비산 기슭 부석사 도량에서 보이는 천수만 전경과 낙조와 어울린 짜임새있는 템플스테이 또한 부석사의 자랑이다.

●마음이 열리는 개심사=개심사는 <나의문화유산답사기>에서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이 5대 명찰로

꼽은 곳이다. 연못 위 외나무다리를 지나며 대웅보전(보물 제143호)과 심검당, 요사 대를 보며 만나고 나면 아늑하고 정갈한 사찰 분위기에 흠뻑 젖는다.

●백제의 미소 서산마애삼존불=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보호각 철거와 복원공사를 마치고 43년 만에 미소를 찾았다. 서산마애삼존불은 6세기말~7세기초 조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원사지와 보원사=백제시대 사찰로 추정되는 보원사 절터다. 서산마애삼존불 인근 보원사지(사적 제316호)는 현재 발굴 진행중이다. 보원사지 당간지주(보물 제103호)와 현존 석조 중 가장 큰 보원사지 석조(보물 제102호), 보원사지 5층석탑(보물 제104호), 보원사지 법인국사보승탑(보물 제105호)과 보승탑(보물 제106호) 등 여러 문화재가 있다.

보원사지 옆 보원사(주지 정경)는 수덕사 말사로 등록된 곳이다. 보원사 정경 스님에게 듣는 내포 가안 이야기도 재미있다.

글=조동성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관광객 늘수록 희망도 커져요”

인터뷰 진태구 태안군수

“이제 태안은 깨끗해졌습니다. 올해 피서하는 태안으로 꼭 와 주십시오. 태안군은 여러분께 아름다운 볼거리와 안전한 먹을거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의 상처를 씻고 6월 27일 서해안 최초로 만리포 해수욕장이 개장했다. 태안지역 행정부 수장으로 '태안의 기적'이라 불리는 기름유출 사고 복구작업을 현장에서 지휘한 진태구 태안군수(사진)를 만났다.

진 군수는 “120여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찾은 태안반도가 점차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고 있다. 푸른 파도와 은빛 모래를 뒤덮은 해안가에 관광객이 늘어 감개무량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진태구 군수는 “늘어나는 관광객만큼 태안 주민들의 희망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만리포 등 기름유출 피해 해수욕장 개장이 설부르다는 일각의 여론에 진 군수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민·관 연구기관 실시자료 결과는 구멍포를 제외한 전 해수욕장이 개장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태안군이 한국해양연구원과 부경대 등에 연구용역한 결과와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한 수질검사에서도 태안반도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안전하다는 발표도 있었다.

진태구 군수는 “무엇보다 해수욕장 번영회 등 주민들이 해수욕장 개장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진 군수는 “지난 겨울 보여준 국민의 힘으로 태안이 다시 살아났다. 올 여름 가족과 함께 태안을 찾아 '태안의 기적'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 태안 인근에는 어떤 사찰이?

●경허 스님 선종 살아있는 천년 고찰 수덕사=수덕사는 백제 법왕원년(599) 창건했다. 조계종 제7교구

태안반도 찾아가는 길

- ◆승용차
 - 서울 출발: 서해안 고속도로 - 서산IC, 해미IC, 홍성IC - 태안 (2시간 소요)
 - 대전 출발: 공주-청양-홍성-서산-태안 (3시간 소요)
 - 광주 출발: 전주-군산-서해안고속도로-홍성

- IC-AB지구 방조제-태안 (4시간 소요)
- ◆열차 (www.korail.go.kr)
 - 장항선: 홍성역 하차, 홍성-태안간 시외버스 이용
 - 경부-호남선: 천안역 하차, 천안-태안간 시외버스 이용
- ◆시외버스 (태안터미널: 041-674-2009)
 - 동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출발 (2시간 10분 소요)

◆태안에 가면 당보세요

7월에는 박속낙지탕이라 불리는 밀국낙지와 해삼물회를 비롯해 꽃게장백반, 낙지전골, 전복구이(죽, 찜) 등이 좋다. 8월에는 오징어, 봉장어튀구이와 밀국낙지, 해삼물회, 낙지전골, 농어가 제철이다.

◆태안정보 궁금하면 이곳에서

태안군(www.taean.go.kr) 문화관광과 (041)670-2544

“깨어있는 휴식”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모악산 금산사 여름 템플스테이

금산사는 14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사찰의 산문을 열고 한국 사찰의 전통문화와 불교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08 금산사 여름템플스테이 일정

제 3차	2008년 8월 1일 ~ 3일 (2박3일)	초등3학년이상(30명), 5만원, 금산사 여름캠프(초등)
제 4차	2008년 8월 8일 ~ 10일 (2박3일)	중학생(30명), 6만원, 금산사 여름캠프(중등)
제 5차	2008년 8월 15일 ~ 21일 (6박7일)	20세이상 누구나(50명), 20만원, 수행-禪나를깨치다
제 6차	2008년 8월 23일 ~ 26일 (3박4일)	20세이상 누구나(50명), 12만원, 수행-禪나를깨치다
제 7차	2008년 8월 27일 ~ 31일 (4박5일)	20세이상 누구나(50명), 15만원, 수행-禪나를깨치다

접수 방법 : http://sansa.geumsansa.org 홈페이지 참여신청란입니다.

접수문의 : 010-6589-0108 / 063)548-4440~2 / Fax 063)548-1390 / geumsansa@hanmail.net 금산사 템플스테이 담당자 : 일제향

입금계좌번호 : 농협 525133-51-001751(예금주:금산사)

준비물 : 등산화,우의,배낭,개인물통,모자,샌달,수건,여벌의옷,작은후레쉬(손전등),개인세면도구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비록성지
모악산 금산사



태안으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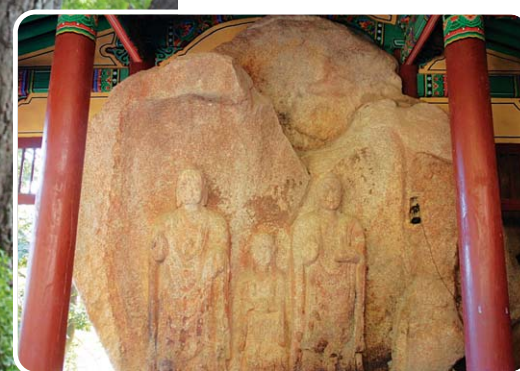
120여 섬이 1300리 해안길 따라 어우러진 태안의 풍경과 낙조를 보셨습니까?

올 여름 태안에서 '기적'과 '수행'을 실천하세요.

태안시암연합회 회장 해연 합장

흥주사

흥주사 은행나무를 아십니까? 흥주사 만세루 앞의 은행나무는 높이 22m, 둘레 8.5m에 달하는 나무로 900살입니다. 태안군에서 가장 오래된 노거수(老巨樹)로서 900여년 세월 만큼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흥주사를 찾아 은행나무 전설을 만나보세요.



태을암

태안 8경 중 으뜸으로 꼽히는 백학산(白鶴山·284m) 중턱에 자리한 태을암에는 태안마애삼존불(국보 제307호)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백제의 미소를 태안에서 만나보세요.